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 운동의 흐름*

허재영**

1. 머리말

1.1. 연구 목적

근대계몽기 이후로 어문정책에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문맹퇴치와 국민 계몽의 문제였다. 문맹퇴치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급함으로써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계몽운동이란 문맹퇴치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 나가는 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식인들이나 종교 단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근대와는 달리 근대계몽기에 이르러 문맹퇴치 문제

* 이 논문은 2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2-073-AM1046)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04년 4월 24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주최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시 논문을 읽고 토론을 맡아 주었던 석주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가 가장 절실하고도 긴박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그 까닭은 기울어 가는 국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근대 우리의 문자 생활이 지식인의 경우 한문 중심이었고, 일반 민중은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의 대중화가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국문'의 보급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통일된 국문을 보급하기도 전에 식민 강점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말과 글의 침탈이 시작되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어문정책은 식민 지배자들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어보급과 문맹퇴치 문제가 주로 계몽운동을 선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통은 광복 이후에도 공교육뿐만 아니라 지식인이나 선교 단체로 이어지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글은 근대계몽기 이후의 문맹퇴치(문자보급) 및 계몽운동의 흐름을 각 시대별로 정리하고, 그 시기에 사용되었던 교재를 발굴하여 소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작업은 각 시대별 계몽운동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문맹퇴치나 계몽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까닭은 연구 범위를 어떻게 한정해야 하는가에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문자보급은 국어연구 및 국문통일 과정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대상을 한정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연구나 국문통일 정책은 어문정책 연구의 독립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용어의 사용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문맹퇴치', '계몽운동', '문자보급' 등의 용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

분이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자보급'이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를 널리 알리는 것이며, 문맹퇴치는 문자 해독력이 없는 사람에게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문맹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두 가지 용어는 구분 실익이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문맹퇴치 운동의 흐름을 고려할 때, '문자보급 운동'은 일제강점기 언론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문맹퇴치 운동을 따로 일컫기도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계몽운동이 갖는 성격을 반영하는 용어인 셈인데, 문자보급이 식민 지배정책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정책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처럼 보인다. 또한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이라는 용어 사이에도 명확한 경계 설정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문맹퇴치는 결국 계몽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맹퇴치'가 문자 해독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계몽운동'은 그 이상의 과제를 담고 있는 용어이므로, 이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문맹퇴치인가 아니면 계몽운동인가를 구분하여 논의의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근대계몽기 이후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길러주려는 어떠한 노력 -국가차원의 정책과 민간 차원의 운동을 포함하여-이 있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시대의 특정 사조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보다, 문맹퇴치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을 하나의 주제로 묶고, 각 시대별 주요 정책과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¹⁾으로 글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1)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과 관련된 자료는 전문적인 연구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고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의 주된 흐름은 자료 고증에 있음을 밝힌다.

2.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2.1. 근대계몽기

근대계몽기의 주요 어문 문제는 언문일치, 국문통일, 지식보급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식보급 문제는 전근대의 ‘필지(必知)류의 전통(통)을 이어받아,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계몽기 계몽운동은 언론사나 각종 계몽단체(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문신문의 발간, 각종 강연회 등은 계몽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야학회’를 조직하고 이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길준의 ‘노동야학회’이다. 이 야학회의 성격이나 조직, 활동 내역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유길준이 저술한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권일(卷一)이 전해옴으로써 그 모습의 일부가 드러난다.

이 책은 유길준이 편찬한 국어교과서이다. 이 책의 편찬 취지는 일면의 삽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삽화는 유길준이 노동자와 악수하는 그림이며, 노동야학회 고문으로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장면에서 유길준은 ‘나라 위하여 일하고 사람은 또한 배워야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계몽운동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셈이다.

유길준은 1907년 8월 일본 망명에서 돌아왔는데, 이때 대한제국은 이미 통감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1907년 10월 ‘사직납품소’에 첨부한 ‘평

2) ‘필지(必知)’는 말 그대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의미한다. 『유서필지(儒胥必知)』와 같은 책은 서리로서 알아야 할 지식을 의미하며, 『스민필지(士民必知)』는 사류(士類)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의미한다. 근대계몽기에 이르러 이러한 ‘필지’류의 책이 만들어진 것은 지식 보급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국복책’이라는 글에서 일본의 보호국화의 진의는 ‘평화’에 있고, 통감 정치는 일본에 의한 한국 외교의 대변, 내정의 지도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국도 이러한 평화에 응하면서 부강을 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당시 의병운동이나 헤이그 밀사 사건에 따른 급진적 병합론자의 득세를 염려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³⁾ 이처럼 우리의 실정이 제국주의 침략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유길준으로서는 민중 계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노동야학회’의 조직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노동야학회가 어떤 조직이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유길준의 의도대로 자주적으로 활발하게 계몽 운동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활동 영역은 미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권일(卷一)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러 권이 더 발간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몽 자료의 성격상 한자 옆에 한글로 음이나 뜻을 달아 놓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길준 이외에도 이 시기에 야학을 통한 농민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이 시기 각종 신문에는 여러 종류의 강습회나 ‘국문권학(國文勸學)’ 등의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1890년 언더우드(H. G. Underwood)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성교성회’의 전통도 선교활동과 국문보급을 병행함으로써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 이들의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 교재는

3) 정용화(2004)에서는 이 시기 유길준의 행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본에서 귀국한 유길준의 입장에서 당시의 급격한 의병항쟁을 전면적으로 찬동하고 나서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일본의 평화 정책’을 수긍하고, 계몽 운동에 좀더 힘쓴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발견되지 않는다.

2.2.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 운동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왜냐 하면 당시 식민 지배정부의 어문정책이 일본어(당시의 국어) 보급과 조선어 억제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대의 계몽운동은 주로 일본어 보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문보급을 통한 계몽운동은 그다지 많은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3·1 독립운동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이는 식민정책이 표면상으로는 ‘문화정차’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총독부의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닐 경우 어느 정도 계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몽운동과는 달리 총독부의 어문정책은 학교교육에서의 조선어 억제와 일본어(국어) 보급⁴⁾이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졌고, 1938년 ‘개정교육령’ 이후에는 공교육에서 조선어교육을 없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대륙침략 과정에서 나타난 산미증산(産米増産) 정책이나 농민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자력갱생운동(自力更生運動)’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부인강습회나 휘보류는 순한글로 발간되었으므로, 이 시기의 문맹퇴치 운동을 단순히 애국계몽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1920~30년대의 계몽운동 자료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20년대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로 ‘조선농민사’를 들 수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김규창(1985), 박봉배(1985), 허재영(2003, 2004)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단체는 1925년 10월 29일에 창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3일자부터 기관지 『조선농민(朝鮮農民)』을 발행한다. 이 기관지는 1920년 6월 1일 제6권 제4호까지 나왔으며, 1930년 5월 8일에는 발행주체가 바뀌어 『농민(農民)』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이 『농민』은 1933년 12월호(통권42호)까지 발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농민순보(農民旬報)』라는 신문형 순보를 발행하였으나, 현재 이 신문을 발견되지 않는다.⁵⁾ 이 농민잡지는 농촌 계몽운동 차원에서 발행된 것이며, 천도교청년당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김기전(金起典, 개벽사 주간), 조기걸(趙基桀, 천도교 청년당 대표), 박사직(朴思植, 천도교 동경 종리원장) 등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며, 김병준(金秉濬), 이돈화(李敦化), 박달성(朴達成) 등의 천도교측 인사와 한건위(韓健偉), 홍명희(洪命熹), 이봉수(李鳳洙) 등의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1925년 10월 두 차례의 회합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 방향을 정하였다.

(1) 조선농민사의 활동 방향⁶⁾

- 첫째, 농민 계몽운동 즉 문맹퇴치 운동으로 진출할 것
- 둘째, 천도교청년당이 그 산파역을 다하고 또 이것을 진작시킴에 이르러는 천도교청년당이 직접 간접으로 그 보모역에 서야 할 것
- 셋째, 천도교청년당에서는 이 일을 가장 성의있고도 가장 충실하고 또 이 방면에 지식을 가진 인물로 하여 이를 담당케 할 것

이와 같은 활동 방침에 따라 조선농민사는 농민 계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 계몽을 위한 여러 가지 교재가

5) 이에 대해서는 이광순(1977) 조선농민지의 내력, 『조선농민』(영인본, 한국학자료원)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김일대(1932), 창사7주년 기념, 『농민』1932-1을 참고하면 될 듯하다.

6) 이광순(1977) 앞의 글. 『농민』1930.5 참고

개발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이성환(1929)의 『농민독본 상(農民讀本 上)』의 발행이다. 이 교재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데, 『조선농민』 1925년 12월호부터 1926년 2월호까지 상권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28년 4월, 10월, 11월호에 중권이 일부 소개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볼 때 이 책은 농민계몽을 위한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강의 방법을 소개한 점은 문자보급 방법의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다음으로 1930년대 각종 언론사의 문자보급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와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에서는 민중 계몽의 차원에서 문자보급 교재와 한글맞춤법 교재를 제작 배포하였다. 이 때 만들어진 교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 언론사의 문자보급 교재)

- 『한글원본』 조선일보사. 1930.7.10.
- 『문자보급교재』 조선일보사. 1934.6.22.
- 『문자보급교재』 조선일보사. 1936.12.13.
- 『한글공부』 이윤재, 동아일보사. 1933.7.1.
- 『일용계수법』 백남규, 동아일보사. 1933.6.20.
- 『신철자편람』 동아일보사. 1933.4.1.
- 『한글맞춤법통일안』 동아일보사. 1933.10.29.

이러한 교재는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문자를 보급하고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주로 자모의 명칭, 낱자 익히기, 문장 익히기, 계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당시 총독부의 시책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문맹퇴치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이에 대해서는 정진석(1999), 『문자보급운동교재』(LG상남재단)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대 농민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읽기 자료가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장지영(張志映, 1930)의 『노동독본(勞農讀本)』이나 신명균(申明均, 1935)의 『노동독본(勞動讀本)』이다. 이러한 독본은 현재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특성을 알아보기 어렵다. 다만 신명균(1935)는 셋째권이 발견되어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독교에서도 농촌 계몽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자료 발굴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가운데 '조선성교서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기독교서회'에서는 1915년 『기독교신보』를 발행하였으며, 기독교 장로총회에서는 1929년 6월 24일부터 『농민생활』을 발행하였다.⁸⁾

2.3. 조선총독부의 계몽 정책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자들의 어문정책은 일본어 보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농촌 경제 파탄, 전시 하에서의 농민 단체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한 '자력갱생 운동'이나 각종 강습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인 문맹자나 여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자력갱생운동은 1934년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이루어진 계몽 정책이었음이 확인된다. 이 운동의 출발점과 전개 양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선총독부에서는 월간으로 『자력갱생회보(自力更生彙報)』를 발

8) 『농민생활』은 기독교의 진리를 전달하는 논설과 수필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필요한 과학적 농사법, 품종 개량 등의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이 잡지는 1934년 숭실전문학교로 발행권이 이관되었으며,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된 조응천(趙應天)이 『개로(皆勞)』라는 제호로 바꾸어 간행하였다가, 1953년 6월 복간되었다.

간하였다. 이 휘보는 1934(소화7년) 5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 처음 발행하였는데, 통권 몇 호까지 발행되었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잡지는 몇 호에 지나지 않는다. 1940년 5월 2일자로 통권 56호가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도 더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56호는 편집 겸 발행자가 최용일(崔勇一)이었으며, 발행소는 조선총독부이다.

통권 56호는 부록이 덧붙여 있었는데, 그 부록은 순한글 또는 한자를 괄호에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축탁 김추국(金秋菊)의 '농촌진흥운동과 농촌부인의 힘'이라는 글에 따르면 농촌진흥운동이 1935년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3) 김추국(1940), 농촌진흥운동과 농촌부인의 힘, 『자력갱생휘보』 통권 56호 부록

...

▲ 농촌진흥은 언제시작하였나?

이상과 갖치 빈궁에 빠져있는 불상한 농가를 구제해서 갱생케 하기위하여 시작한 것이 농촌진흥 운동입니다. 다시말하면 각농가를 속히 걱정업는 생활을 식히려고 여러 가지로 지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운동의 근본방침은 자력갱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력갱생이란 무슨뜻이냐하면 자기의힘으로 자기를 소생시켜서 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이잇고 할일이잇고 할틈이 잇서도 일을아니하고 부지런치안코 놀고먹기를 조와한까닭에 빈궁해진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내집은 나의힘 나의손으로 갱생해야 겠다는 자각과 분발을내가지고 활동을해서 생활을 안정해 가자는 것입니다. 『농촌진흥 자력갱생운동』이란말이 즉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희조각에 써서둔게 잇는것인데 그것은 농사와 살님을 이리이리해서 살림

을 늘리자는 계획표입니다. 다시말하면 농사는 엇더케 개량해서 얼마큼 추수를 늘리고 부업은 무엇을 엇더케해서 수입을 늘리고 지고 잇든빚은 엇더케 가파가자는 것을 써두어가지고 그대로 꼭실행하도록 할것입니다.

▲ 농촌진흥운동과 농촌부녀자의 관계

농촌진흥운동이 이러한지는 벌써 다섯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총독부이하 도군면학교 금융조합. 주재소등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농가에서도 그 지도를 잘밧아서 실행하여온까닭에 해마다 갱생하여 가는 농가가 느려가니 이 얼마나 반갑습닛가. 그런데 이운동은 농촌 부인과는 써러질수업는 관계가 잇는것입니다. 그것은 엇재서 그러나 하면 농촌부녀는 집안살림을 마타하는관계상 그 살림을잘하고 못하는데서 농가의 갱생도 잘되고 못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운동으로써 농촌부녀자도 자각이 만히되어서 전자에 아니하든 밧갓일도 만히해서 농사에 조력도하고 부업도 잘들해서 수입을 엇고 쏘는 절미 저축과 가튼 것을 실행하는 동시에 살림비를 절약해서 집안살림을 보며더 짜라서 갱생계획 실행도 잘되는집이 만습니다. 그런걸로 보며는 농촌부녀자는 농촌진흥운동의 보조자가 아니라 당당한 관계자라고 볼수잇습니다.

그런의미로서 농촌부녀들께서는 농촌진흥운동에대하여 좀더 기쁘리해와 자각을 내서 일충분발 활동하셔서 갱생의 목적 달성에 힘쓰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력갱생(농촌진흥) 운동은 농민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궁극적으로 식민 수탈로 인하여 피해를진 농촌 실정을 '농민의 게으름이나 무능' 탓으로 돌리고 이를 깨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식량 증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운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각종 강습회 가운데 우리글을 수단으로 삼은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로 당진군에서 이루어진 『부인강습회 강연록』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표지와 부록이 낙장이며, 강연록 목차와 본문만 남아 있다. 본문 가운데 '나무절야과 불조심'에서 '우리 당진에도 합덕면 순성면 신평면은 먼저 말한 바와 갖지 범언산이 만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당진군의 부인강습회 강연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한글로만 이루어진 강습회 자료이다. 책의 발행 연도는 쉽게 추정할 수 없으나 강연록 첫회 '농촌부인의 심득'이라는 김군수(당시 당진군수였을 것으로 추정됨)의 글 속에 '먼저번에 기회를 말삼할썬에 지금 극도로 곤궁하게 된 우리 조선 농촌을 김침식하고자 함에는 불가불 농촌 부인 여러분의 활동을 기다리아만 하겠다는 말삼과 이번에 이 부인강습회를 열게된 취지를 디강 말삼하얏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다시 농촌 부인의 심득이라 하는 문데 다시 말삼하면 농촌부인이 알고 쏘한 썩 실행하여야 할 일 몇가지에 디하야 말삼하고자 합니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자력갱생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한 계몽운동은 문자보급의 차원보다는 피폐해진 농촌 경제에 대한 책임 회피, 농업 기술 향상을 통한 식량 조달,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차원에서 계몽운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부녀자나 농민을 대상으로 한글 자료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기관은 조선총독부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기관, 금융조합, 주재소 등이었음도 확인된다.⁹⁾

9) 이러한 사례로 응세농도학원(應世農道學院)에서 발행한 『응세농민독본(應世農民讀本)』을 들 수 있다. 이 농민독본은 조선총독부 농립국장의 '수신제가'라는 제자를 신고, 제1편 훈화, 제2편 국어(일본어), 제3편 조선어, 제4편 소농의 경영방침, 제5편 도작, 제6편 천수답, 제7편 맥작, 제8편 조선의 잠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3. 전국기[미군정으로부터 전후까지]

3.1. 미군정기로부터 정부 수립기까지

광복 이후의 시급한 어문 문제는 국어회복과 문맹퇴치였다. 특히 1938년 이후 공교육에서 우리말과 글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글 해득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국민의 7할 정도가 문맹자라는 보고가 있듯이, 국어회복과 문맹퇴치는 지식보급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의 계몽운동은 정부와 민간을 가릴 것 없이 한글 보급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¹⁰⁾

이 시기 우선적으로 눈에 띄이는 것은 공교육에서의 한글 보급이다.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조선어학회의 주관으로 『한글 첫걸음』(1945)을 펴내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이나 중등교육을 받기 전에 한글 교육을 먼저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교재는 전통적인 문자 학습 방법을 탈피하여 최초로 ‘자모식’ 학습을 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었다. 이를 밝힌 부분이 ‘주의’ 부분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글 첫걸음』의 ‘주의’

1. 이 책은 ‘초등 국어 중·하’ 또는 ‘중등 국어 상·하’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국어 공부의 터전을 닦아주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것임.
2. 이 책을 가르치는 교사는 ‘초등 국어 한글 敎授 指針’을 參考 利用할 것으로 함.

는 농민독본도 계몽 운동 주체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 이 시기의 국어과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는 허재영(2004-)을 참고할 수 있다.

3. 한글 字母의 이름은 아래와 같이 가르칠 것으로 함.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음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그리고 거듭된 字母의 이름은 아래와 같이 가르칠것으로 함
 ㅊㅊ=쌍기역 ㄸ=쌍디귤 ㅃㅃ=쌍비음 ㅆㅆ=쌍시옷 ㅉㅉ=쌍지읒
 ㅙ=애 ㅛ=애 ㅜ=에 ㅠ=예 ㅗ와 ㅛ=왜 ㅜ와 ㅠ=외 ㅑ=위
 ㅑ=웨 ㅑ=위 ㅑ=의

(4)의 자모식 학습법은 이 시기에 나온 다른 『한글첫걸음』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낱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¹¹⁾ 예를 들어 국민개학운동(國民皆學運動)의 팜플릿이나 1954년 전후 대한 계명사업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첫걸음』 등은 모두 자모식 낱자 학습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어회복의 차원에서 군정청 문교부(1946) 『사정한 표준말 모음집』을 발간하며, 학술용어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¹²⁾

이러한 문맹퇴치 노력과 함께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각종 한글맞춤법 해설서를 내놓게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병제(1946), 『한글 맞춤법 해설』(정음사), 장하일(1946), 『한글맞춤법교본』(고려문화사), 이희승(1948), 『한글맞춤법 통일안 강의』(동성사, 59년도 신구문화사) 등이다. 이러한 교재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맞춤법 교재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보급과 교양 능력 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각종 한글독본류가 발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인승(1946), 『한글

11) 한글 낱자 교육은 자모식으로 쉬운 모음, 자음, 겹자음, 받침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사고가 이 책으로부터 비롯된 셈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건국기의 어문정책'이라는 제목의 다른 논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기 발행된 각종 한글보급자료는 <http://edukorean.org>의 어문정책 자료실을 참고할 수 있다.

독본』(정음사)이 있다. 이러한 독본류는 당시 읽을거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계몽용 교재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좌익계의 문맹퇴치용 교재도 비교적 활발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해방사편집부(1946), 『문맹퇴치 인민독본』, 『농민정치독본』, 『사회주의 경제약설』(모두 해방사 간행) 등이다. 이러한 자료의 내용 구성은 저작자의 의도가 반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해방사 간행물은 다분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3.2. 전후의 문맹퇴치 정책

정부 수립후 문자보급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자보급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더욱이 학교 교육 시설의 부족과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¹³⁾은 문맹퇴치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공교육이 아닌 사회 교육 기관(각종 공민학교) 및 군대 내의 문맹퇴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때 교재는 문교부에서 발행하였는데, 『국문독본(국문교육반용)』(1954), 『성인독본(성인교육반용)』(1955), 『새 살림 그림독본, 성인교육용 보충교재』(1956) 등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발간 목적은 책머리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문교부 발행 문맹퇴치 정책 자료

1. 『국문독본』과 『성인독본』 : 한글 첫걸음, '지도하시는 분에게,

13) 학교 교육 시설 부족이나 문자보급 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자유신문』, 『동아일보』 등의 기사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사에서는 1960년대 이전까지 자사 신문 기사목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문맹퇴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한글 첫걸음”은 그림과 낱말과를 나란히보여 낱말을 학습하게 한 다음, 거기서 낱자를 따로 떼 내어 “낱내 보기틀”로서 낱자 학습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한글 낱자의 학습이 끝난 후, 이를 자모별로 지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글 첫걸음”은 종래의 “한글 첫걸음”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받침의 학습을 확실히 하는 것은 맞춤법 공부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종래의 “한글 첫걸음”에서는 비교적 등한히 한 것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자세히 풀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지도하시는 분은 언어 학습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이 글자를 자주 되풀이하여 눈에 익히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책에서 그러한 점이 모자라는 곳은 칠판 또는 낱말 카이드를 이용하여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새 살림 그림독본』(성인교육용 보충교재) ‘머리말’

글을 보고 읽고 적을수 있는 「글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만이 글을 배우는 목적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배운 글로써 좋은 서적을 통하여 어진 선배와 학자들의 높은 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본받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이치와 여러 가지 지식을 깨치어 인격을 더욱 높이며 일상 생활과 각자의 생업을 편리하고도 효과있게 처리할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는 바와 깨친 바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깨우쳐서 가정인으로서나 사회인으로서 자기 구실을 다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지위를 높이며 행복되게 하고 보람있고 빛나는 삶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글을 배우는 참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개명된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옛날처럼 다스림을 받는 처지에서 억눌리어 명령에 복종만하고 지내 오던 때와 달라서 나라의 모든 주권을 국민이 가지게 되었고 또한 사람으로서의 동등한 「기본 권리」인 인권을 온전히 행사하

게 되었으므로 일반 국민은 더욱더 지식을 널리 구하고 올바르게 깨치어서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떳떳이 주장함과 동시에 자기의 맡은바 임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제 구실을 올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날에는 우리 나라와 사회의 민주 발전과 문화는 제대로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8·15 해방 이래 우리 정부가 서면서부터 문교부에서는 국민 교육에 힘써 왔고 더욱이 「국문 보급, 이른바 문맹퇴치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큰성과를 보았음으로 이제는 우리 국민가운데 우리 국문인 「한글」을 깨치지 못하는 국민이 그다지 많지 않게된것입니다. 그러므로 문교부에서는 성인반과 국문 교육반에서 우리 한글을 깨치게 된 많은 국민 남년에 대하여 국문 해독의 실력 증진과 일상 생활의 개선 향상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그림을 보고 글을 읽어 재미있고도 쉽게 내용을 깨칠 수 있는 「새 살림 그림 독본」을 펴내는 바이오니 이 책을 성인반에서 배우고 또 각 가정에 차례로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생활을 좀더 문화적으로 빛나게 하고 나아가서는 글 읽는 습관을 들어서서 다른 좋은 책을 힘써 읽어 너나할 것없이 스스로 교양에 힘쓰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마련해내는 바입니다. 단기 4289년 6월 일 문교부장관

위의 세 종류 자료는 문맹퇴치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담고 있던 교재였다. 이 교재는 모두 무료로 배포되었다.

이와 함께 군대 내에서의 문맹퇴치 정책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군에서의 문맹퇴치는 단순한 국문보급의 차원을 넘어, 일정한 능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예를 들어 『성인교육용 공민독본 일(군용)』(1954), 『성인교육용 공민독본 이(군용)』(1954), 『한글독본』(해방대 사령부, 1953) 등은 이러한 교재에 해당하는데 교재 개발은 모두 문교부가

말았다. 그 가운데 『성인교육용 국문독본(군용)』의 머리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성인교육용 공민독본(군용)』일, 이런 머리말

군대내 공민교육의 목적은 각개인의 학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군 전체의 능력을 증진시키에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학력이 없이 복잡한 과학무기와 기계에 대하여 그 학술과 기능을 체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내 공민교육은 군사교육에 도움이 되며 군 전체의 능력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휴전 기간중을 이용하여 우리 군 사상 처음 보는 강력한 군대내 공민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행되는 것이 이 교재인 바 이 교재는 바로 교육각서 제49호(4286년 8월 27일부)에 의거한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문교부에서 작성한 “성인교육용 공민독본”을 그대로 복제(複製)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교재만으로는 군대내 교육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교관 제위는 이 책 이외에 많은 다른 책을 참고로 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오직 이 책은 초등기본교육의 일개 표본교재로서 발행할 뿐입니다.

공민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공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항상 높은 창의성과 열성으로써 우리 육군 발전에 최대의 노력을 숭선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4286年 9月 30日 陸軍本部 政訓監 陸軍准將 朴 英 俊

이와 같이 각종 공민학교용 및 성인용, 군용 문맹퇴치 교재는 기본 단계에서 한글첫걸음을 두고, 문자 해득이 가능하게 되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숫자 익히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 편제는 일제강점기 언론사의 문자보급 교재 및 각종 농민독본,

노동독본류의 편제와 유사하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자의 의도와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새 살림 그림독본』에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3. 선교 활동과 문맹퇴치 운동

문맹퇴치 운동의 중심 단체로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다. 기독교는 조선 성교서회나 기독교장로총회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가 선교 목적에서 한글 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로 대한계명협회가 있다. 이 단체의 성격은 잘 드러나 있지 않으나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안신영 목사가 회장을 지낸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 비교적 다수의 계몽 교재를 발행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 대한계명협회의 계몽 자료

- ㄱ. 『한글첫걸음』과 한글첫걸음 궤본(1953년 추정)
- ㄴ. 『한글독본』(여섯 권, 1953년 추정)
- ㄷ. 『예수의 이야기』(여섯 권, 1955-58년 사이 추정)
- ㄹ. 『사철의 노래』(1958.11.30)
- ㅁ. 소책자 일곱 권: 『살길 찾은 동촌 마을』, 『살기 좋은 남주 마을』, 『누가 이기나?』, 『새 마을 사람들』, 『무엇을 믿나』, 『편지는 이렇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1958년까지)
- ㅂ. 『한글 맞춤법 비결』(안신영 저, 1960)

이러한 교재는 일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사철의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머릿말’이 실려 있다.

(8) 『사철의 노래』 ‘머릿말’

우리는 오래 전부터 소년들을 위하여 책 하나를 내어놓으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책을 만들어달라고 졸라대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철의 노래』이 책은 그야말로 소년독본입니다. 소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들어 내는데 글로는 이광호 선생의 공이 제일 많고 크고, 오소운 선생의 공도 적지 않으며, 아름다운 그림은 모두 김영주 선생이 그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년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배우는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1958년 11월 10일 안 신 영

4. 1960년대의 계몽 정책

4.1. 재건운동과 계몽 정책

1960년대의 계몽 정책은 ‘재건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계몽 정책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 및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최고 기관은 ‘재건국민운동본부’라는 관변단체였다. 이 단체는 1961년 6월 조직된 단체로 5·16의 이념을 전국민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단체였다. 이 단체는 5·16 군사정부에서 내세운 혁명과업을 중추적으로 실천하고자 조직되었는데, 그 기구로는 본부장 아래 차장을 두고, 차장 아래 총무부, 기획부, 운영부, 계몽국, 지도국, 훈련국을 두었으며, 차장의 직속으로

도지부와 시군(구)촉진회, 읍면, 동리 촉진회, 재건국민반을 두었다. 이 때 각 도지부의 장은 도지사가 맡았으며, 시군촉진회는 시장과 군수, 읍면촉진회는 읍면장이 담당하였다.¹⁴⁾ 이처럼 '운동'을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관 주도의 단체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은 초대 본부장이었던 유달영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9) 국민혁명(國民革命)으로의 전진(前進)¹⁵⁾

四월학생혁명 五月군사혁명을 거쳐서 다시 국민 혁명의 단계로 들어섰다. 오늘의 혁명의 주체는 벌써 군인들이 아니오 국민들 자신 어야 한다. 아무리 학생들과 군인들이 열성을 다 한다 하더라도 민 중이 산송장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무기력 무감각하다면 혁명 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

국민혁명을 담당한 동지 여러분은 결코 내 자신을 적게 평가하지 말 것이다. 시계속의 몫이 작은 나사 한개가 깨져도 그 시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농촌에서 땅파는 한 농민이요, 공장에서 나뉘는 직공이라 할지라도 내가 혁명에 무관심하다면 이 크나큰 민족의 시계는 벌써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이 작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군사정부의 주도세력인 군인들이 전국민

-
- 14) 재건국민운동 운영부(1962), 재건국민운동기구 개편의 지침, 『재건통신』제1호, 재건국민운동본부. 『재건통신』은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기관지로, 이 글에 따르면 1961년 6월부터 1962년까지 3차에 걸친 기구 개편이 있었으며, 3차 개편에서는 중앙위원회를 두고, 각부서를 '실(室)-(次長)-과(課)'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시도지부-읍면촉진회'를 확대개편하였다. 아울러 읍면 단위마다 '재건청년회(再建靑年會)'와 '부녀회(婦女會)'를 두어 국가 전체를 재건운동조직으로 통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몽운동이 자발적이 아닌 국가 주도의 정책적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 15) 유달영(1962), 『재건통신』제1호, 재건국민운동본부.

적 실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이 단체의 실천요강에도 충분히 드러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국민운동 실천요강

- | | |
|----------------|------------------|
| 1. 승공 민주이념의 확립 | 2. 내핍생활의 여행 |
| 3. 근면정신의 고취 | 4.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
| 5. 국민도회의 양양 | 6. 정서 관념의 순화 |
| 7. 국민 체위의 향상 | |

(10)의 실천요강에서는 군사정부의 혁명이데올로기인 ‘반공’과 ‘경제건설’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1960년대의 계몽운동은 국가 주도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반영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반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계몽정책이었지만, 재건국민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비록 관 주도의 운동이라 할지라도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고, 상당수의 문맹자들에게 글을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깨움으로써 자발적 혼란 상태보다는 나은 상태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⁶⁾ 그렇기 때문에 재건운동을 통하여 상당수의 문맹자가 문맹퇴치 교육을 받았고, 이 운동을 통하여 농촌 재건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6) 5·16 이후의 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문맹퇴치 및 계몽정책의 사실 여부를만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를 배제하고 사실적으로만 기술한다.

4.2. 재건운동에서의 문맹자 교육

재건운동에서의 문맹자 교육은 ‘문맹자 완전 해소’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이는 건국기의 문교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문맹퇴치 정책을 통하여 문맹률을 상당히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참고로 이 시기 문맹퇴치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1) 문맹퇴치 대상자 총수(4292년도)

만12세 이상 총인구수	남자	여자	계
15,226,083	757,030	2,411,112	3,168,142

(중앙교육연구소 조사)

이 시기 문맹자의 특징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많았다는 점인데, 이는 여성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는 점, 남성의 경우 군대 내에서의 문맹퇴치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문맹자는 불과 75만이나 여성은 3백만 명이 넘는다. 따라서 문맹자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부녀자 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국민운동에서는 ‘부녀회’와 ‘청년회’의 활동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건국민운동 차원에서 문맹자 교육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61년 12월부터 1962년 4월 사이에 실시된 문맹퇴치 교육은 군사 전략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17) 재건국민운동본부(1961), 문맹자 교육 계획서, 『재건생활』제10호, 재건운동본부.

(12) 문맹자 교육 계획서

1. 목적 :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문맹자 교육을 실시하여 문맹자를 완전 일소하므로서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함에 있다.

2. 방침

(가)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본사업을 실시하여 문맹자를 일소하여 국문해독과 기계기록 정리는 물론 사리판단의 능력을 배양한다.

(나) 본 사업은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며 행정부처는 적극 후원한다.

(다) 본 사업의 일반 추진체는 재건국민운동 산하, 리, 동 재건청년회와 재건부녀회가 담당한다.

(라) 본 사업의 세부 계획은 재건 국민운동 도(시)지부가 수립 시행한다.

3. 실시 기간

본 사업은 준비기간, 실시기간 및 평가기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준비 기간 : 자 4294년 12월 1일 지 4294년 12월 10일
본 기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제반 준비태세를 확립한다.

(나) 실시 기간 : 본 기간에는 준비태세를 통한 제반 문맹자 교육운동에 전력을 경주하여 고도의 성과를 기한다.

자 4294년 12월 11일 지 4295년 4월 30일

(다) 평가 기간 : 본 기간에는 실시 결과를 종합 심사 분석하여 계속적인 문맹자 교육운동의 참고로 한다.

4. 문맹자 교육운동의 주무기관 및 협조처

(가)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재건국민운동 도(시)지부가 주관하여 재건청년회 및 재건부녀회가 추진체가 되어 재건학생회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본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나) 협조 부처인 문교, 농림, 공보부는 협조 후원한다.

...(이하 생략)

이와 같이 문맹퇴치 교육운동을 군사전략처럼 세울 수 있었던 배경은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사 정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박정희 의장은 '밀수와 탈세, 독직, 고리대금 일소' 등의 사회 부정부패 문제, '실업, 전력부족, 교통 및 통신 시설, 식량 생산 부족' 등의 경제 문제의 해결을 구호로 내세우고, 군사 정부의 혁명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맹퇴치 교육운동도 전략적으로 기획 실시되었는데, 표면상으로는 '문화국가와 민주국가의 번영을 위한 토대'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는 운동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문맹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문맹자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문맹자 교육의 내용

과목	지도내용	지도 방법	소요 시간	방법	참고문헌
국어	1. 한글자모	강의	4	전 지도기간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한글공부
	2. 한글자모	"	4		
	3. 한글맞춤법	"	12		
	4. 읽기 쓰기	"	10		
산수	1. 아라비아 숫자	강의	2	"	국민학교 섹션 교과서
	2. 덧셈	"	4		
	3. 뺄셈	"	4		
	1. 5·16군사혁명의 의의	강의	3	"	공보부 발간 책자
	2. 혁명정부의 중요시책	"	3		
	3. 혁명공약	"	2		
	4. 기타 필요한 교육	"	2		

이상과 같이 1960년대 이후의 문맹퇴치 정책은 문자 해득력뿐만 아니라 국민 계몽의 차원에서 전략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계몽 정책은 관 주도의 다른 사회 운동으로 이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공과(功過)를 남기기도 하였다.

5. 맺음말

이 글은 근대계몽기 이후의 어문문제 가운데 하나인 문맹퇴치 및 계몽 운동의 흐름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글이다.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 계몽 운동의 과제와 전개 양상, 그러한 운동에 사용되었던 교재의 발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실증적 자료 발굴과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계몽 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정리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따른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자료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자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보존된 자료조차도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계몽 운동의 주최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계몽 내용과 방법이 편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의 흐름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료의 발굴이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발굴된 자료의 성격을 분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각 자료마다 계몽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이 시대별, 제작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해 가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김규창(1985), 『조선어과 시말과 일어교육의 역사적 배경』, 고김규창박사 유고 논문 간행위원회.
- 박봉배(1985), 『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용화(2004), 유길준의 생애와 사상, 『한한샘 연구』제17집. 한글학회.
- 정진석(1999), 『문자보급운동 교재』, LG 상남재단.
- 허재영(2003),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 『제2회 중국-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중국-한국어교육학회.
- 허재영(2004ㄱ), 일제강점기 일본어(국어) 보급 정책, 『사회언어학회 2004년 봄 학술대회 논문 자료집』, 사회언어학회.
- 허재영(2004ㄴ), 과도기의 국어과 교과서, 『교육한글』제17집. 한글학회.
- 그밖의 발글 자료 목록은 <http://edukorean.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bstract

The Trends of Eradication of Illiteracy and Illumination Policy from the Age of EMRT(Enlightenment of Modern Recent Times) to the 1960's.

Heo, Jae-Young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Eradication of Illiteracy and Illumination Policy(or Campaign) from the age of EMRT to the 1960's in Korea. The policy of Illiteracy Eradication(or Campaign) was included by the policy of Illumination. Illumination meant many types campaign, that is illiteracy eradication, reform of consciousness and PR of national policy. But I didn't distinguish from two policies, because the spread of Literacy meant the basic of illumination.

In the age of EMRT, Korean forerunners realized the importance of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Specially, Yu Gil-jun organized the society of evening school to workers(Rodong-Yahak-Hoi : 勞動夜學會), and he wrote the Reading Textbook to evening school to workers[*Rodong-Yahak-Dokbon* : 勞動夜學讀本].

In the period of Occup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I discovered two ways the policy of illumination ; The spread of Literacy Movement by Korean : They taught to peasant and worker. But the colonial government's ends were increased productivity. So two ways textbook were different.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a country means the period of transition. In this

times, illumination policies aimed to recovered national language and decreased the illiteracy rate. *Hangeul-Cheot-geol-um*(the first step to Korean) was published, and the government and missions were interested in illumination move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acticed the illiteracy eradication campaign. In 1960's, the Military government practiced so call 'Reconstruction of Nation'. This illumination project aimed to reached 0% of illiteracy rate.

I searched for many textbook of illumination policies. But those materials had many-sided drifts. So this report aimed to described various materials.

[Key word] illumination policies, illiteracy eradication, recovered national language, illiteracy rate